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된다.

(행9:31)

부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칭송 받는 교회로

(행2:47)

목회방향

1.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2. 전도와 양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2020년 1월 1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전 3:11-22

제목 : 새 출발의 신앙 · 후회 없는 인생(2)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말씀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간은 사유(思惟)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유한다는 의미는 대상을 구별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추리하고 헤아려 판단하는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유의 능력으로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발달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달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가 가진 사유의 능력으로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가? 행복한 삶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의 답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965년도에 처음 불리지면서 크게 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정서가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저도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목이 뭐지요? 하숙생입니다. 2절은 더 허무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 인생이 나그네 길 임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 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고 만 했습니다. 기독교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 노래 못지않게 청년시절에는 모닥불이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가사와 멜로디가 좋아서 젊은 시절에 여름에 캠핑 가서 모닥불 피어놓고 많이 빙 둘러 앉아서 타는 모닥불을 보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한번 불러 볼까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 화면에 악보 띄웁니다. (악보 화면)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맞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화장터에서 화장을 다 마친 시신을 보면 한 줌의 재만 나옵니다. 정말 인생은 재만 남기고 타버리는 모닥불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타다가 없어지는 모닥불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닥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인생은 그가 살아간 삶의 자취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은 재만 남기고 사라지는 모닥불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는 인생의 흔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97년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중환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목이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당시 자신의 삶에 상황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감동을 주는 가사 말입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걷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해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아침엔 솔로몬이 말해주 답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곳에서 쓰인 "기뻐하며" 이 단어는 원문의 동사가 능동태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 자기 스스로 기뻐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여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기뻐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드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올 해는 쥐 띠 해이니까 사람들이 쥐에 관한 속담을 갖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지요?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을 낙천적인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

입니까? 인간의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쁘게 산다고 노력을 해도 자꾸 주변에서 일들이 발생하는 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을 먹으로 잠시 사택에 들렀다가 7시 뉴스를 보는 데 자막에 송도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서 1명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보도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기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라는 이 단어가 지닌 수동적인 의미에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나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에서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나간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고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즐겁게 사는 은혜를 즉 선물로 주셔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를 첫 번째로 말한 뒤에 두 번째로 희락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큰 병원에서 119 한자를 수송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위급한 환자들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면 그 환자를 트레일러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데 같이 도왔습니다. 그가 보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손발이 묶여서 오는 정신과 환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환자가 아니다 라면서 버럭버럭 반항하는 자도 보았습니다.

늘 이분은 그런 환자들을 운송하면서 마음속에 불평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첫발을 잘못 내딛어 지금까지 10년 이상 일하고 있지.. 그리고 운전만 하면 되지 왜 환자들을 같이 응급실까지 같이 가야 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에 늘 투덜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신이 연약한 자기 나이 또래의 환자를 급하게 수송하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환자를 트레일러에 태워서 병실로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히죽 히죽 웃으면서 이렇게 조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 했을까요? “당신 정신이 온전한 거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을 하는데 그 말을 한 정신이 약한 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정신이 온전한 것을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기쁘게 일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 병원의 모든 차량을 담당하고 배치하는 책임을 맡은 부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당시에 20만원인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순례의 길을 살면서 하루하루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삶의 그 자리에서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 하십니다. 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본문에서 쓰인 <선>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행할 때 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크게 4가지입니다. 1)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3)만물을 다스리려 했으니 자연을 사랑하며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4)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이것은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입니다)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본문과 연관지어서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

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브를 만들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 이야기 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입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사랑의 나누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누리는 식탁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삶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그런 교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제를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성교회 50년사의 기록에도 썼다시피 우리 금성교회의 성도들이 식사를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자리가 보아스의 식탁이 되기를 늘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방 여인이며 젊은 과부로써 의지할 것도 없던 롯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일들이 매 식사시간의 교제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교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고백했습니다.

을 한해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선한 모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울 기회에 돕기를 바랍니다. 잠언3:27-28입니다.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갇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손이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도우라고 했습니다. 내일 주겠다고 미루지 말라, 고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신년 축복 성회 때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인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취장암으로 12년간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 게 분명합니다. 그 내용들이 시에 많이 표현이 되어 나타나있습니다. 인생 길을 모르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메시지가 시 가운데 종종 나옵니다. 그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나태주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 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 있는 사랑스런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은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이 시가 새 옷을 아끼면서 입지 않는 많은 여성분
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읽고
감동을 잠잠히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에 첨
가하고픈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곳을 사랑할 기회
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베푸세요./ 지금 사랑을
나누세요./ 지금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생각
이 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부름을 받
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
입니다. 아,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 때 동생을
좀 도와줄 걸, 그때 부모에게 좀 더 잘할 걸. 그때
자부에게 좀 부드럽게 대할 걸. 그때 좀 친절하게
말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말길 바랍니다.

나이든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사람에겐 몇 가지
의 '금' 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금'과 '황금'과 그
리고 무엇일 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현실적으로 웃기 위하여 보태기도 합니
다. 무슨 금이 또 있을 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현금'과 '입금'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자리가 제일입
니다. 1월의 목회주제가 새 출발의 신앙 후회 없
는 인생입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
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
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게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
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
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으니 즉 앞날을 모르
니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압니다. 솔
로몬은 인생에게 당하는 일도 동물에게 당한다고
했습니다. 즉 인생도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
가는 것처럼 동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의 모습을 보면 다음
으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
이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혼>이라는 단어는 <숨결>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 숨결이 끊어져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
기에서 쓰인 <혼>은 <영>을 의미합니다. 동물들
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되어 족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서 인간의 혼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
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후반부
의 말입니다.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
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
라?" 죽은 후에 일어날 일 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고 했습니다. 그렇
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
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
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
고, 마음속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
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
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에게 불변의 답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고 솔로몬은 단정을 짓고 있습
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답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해보시
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